제 19회 졸업 특집

월드미션 헤럴드

WORLD MISSION HERALD

WMU

목 차

1 들어가기

19회 학위 수여식을 맞이하며 - 임동선 총장 / 2

이원경 목사 명예 선교학박사 학위기 / 3

2010년 졸업생 명단 / 4

2 학교소식

학교행사 / 10

초청 강사 칼럼 /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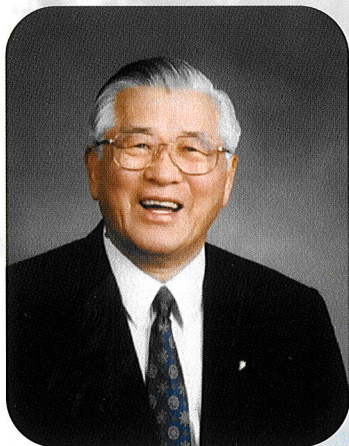
동문소식 /15

2009년 가을학기 설교대회 - 김박선미 / 16

교수 칼럼 / 18

동문소식 / 20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명단 / 23

발행인 임동선
편집인 최선영, 윤명주, 정훈주
발행일 2010년 5월 19일
발행처 월드미션대학교 / 신학대학원
World Mission University
500 shatto Place
Los Angeles, CA 90020
Tel) 213.385.2322 Fax) 213.385.2332
Website: www.wmu.edu E-mail: wmuinfo@wmu.edu

지도자의 조건인 지성, 덕성, 영성을 두루 갖추십시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타국땅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공부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19회 졸업생 여러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와 헌신적인 뒷바라지로 여러분들을 졸업시키신 부모님과 가족의 노고, 신학교에서 섬기는 교직원들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급변하는 이 시대에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충직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지도자로 훈련받고 일선으로 떠나는 자리에 서있습니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가는 지도자는 지성과 덕성, 영성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첫째로 지도자는 지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지식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시대를 바르게 읽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의 삶과 역사의 흐름, 그리고 사회의 요구를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실천하기 위한 희생을 각오해야 합니다.

둘째로 지도자는 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타인에게 모범을 보여야 됩니다. 겸손하며 이성과 명예심이 깨끗해야 합니다. 훌륭한 지도자는 말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모범이 됨으로써 영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고매한 인격과 풍성한 사랑을 지녀야 합니다. 과학 기술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사람과의 만남을 더욱 소중히 하여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의 다양성을 중시하며 각자의 개성과 독특함을 존중하는 목회를 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도자는 영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영성이 깊어야 합니다. 영성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화해도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굳건하게 잡아야 합니다. 개인과 가정, 사회, 인류를 구원하는 길은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닌 오직 십자가의 능력뿐입니다.

마태복음 28:20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말씀과 빌립보서 4:13의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새기십시오.

여러분은 이 시대를 인도할 지도자들입니다. 복음의 전문가가 되고 시대를 읽는 통찰력과 지도력을 갖춰야 합니다. 졸업 후에도 지성과, 덕성, 영성을 계속해서 가꾸며 무엇보다도 성령충만함을 간구하여 깨끗하고 선한 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안목과 리더쉽으로 무장하여 십자가의 도를 굳게 붙들고 지구촌 곳곳의 많은 영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 세계를 복음화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임동선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이원경 목사

월드미션대학교는 제 19회 학위수여식에 즈음하여 이원경목사에게 명예 선교학박사 학위를 수여한다.

이원경 목사는 1938년 6월 30일 만주봉천(현 심양)에서 출생하였다. 귀국 후 대광고등학교, 서울장로회신학교, 장로회 신학대학을 졸업한 후, 감리교신학대학 선교대학원에 진학하여 신학석사학위 취득하였으며,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평양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아 목회사역을 시작하였다. 그 후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이수한 바 있다.

서울에 있는 성광교회 담임목사를 거쳐 부산 양정교회, 서울명지학교 교회담임목사로 시무 중, 선교의 뜻을 품고 브라질로 이민하여 쌍파울로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하였다.

그 후 아마존 선교사가 되어 6년간 인디안 마을 31개 처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헌당하였으며 아마존인디안 성경학교를 설립하여 인디안 교회지도자 양성에 힘썼다. 한국으로 귀국한 후, 화정 제일교회를 개척하여 자립하게 한 후 부산 평광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면서 미 자립교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회성장 기도모임을 조직하여 8개 처 교회를 지원하였다. 이 외에도 콜롬비아 아마존 인디안 선교회를 조직하여 초대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아마존 인디안 마을을 방문하여 의료선교와 복음 전도사역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이원경목사의 사역을 돌아볼 때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사료됨으로 본교는 박사학위수여 규정에 따라 교수단의 추천과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원경목사에게 명예 선교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바이다.

2010년 6월 5일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임동선 박사

2010 봄학기 신입생 환영회

말씀을 전하시는 임동선 총장

지난 1월 19일에는 2010년도 봄학기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및 환영회가 열렸다. 신입생들은 각 과정별로 담당교수와 수강상담을 하고 총장님과 면담과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조석환 교수님의 식사기도를 시작으로 교제를 나누며 재학생들의 환영의 노래, 교수소개, 신입생소개, 동문회 소개 등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임동선 총장은 마태복음 9장 37-38절의 '새 시대가 요구하는 인물'이라는 제목의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며 '이 시대에 필요한 인물은 정직한 인물, 의지가 철썩같이 강한 신의가 있는 인물, 한 가지 일에 불타는 열성적인 인물, 작은 일도 큰 일로 생각하는 충성된 인물, 개인의 야심이 아닌 인류의 야심인 이타심이 있는 인물, 기회를 잡는데 민첩한 판단력이 있는 인물, 용기있고 결단성 있는 인물, 어디를 가든지 자기 특색과 정체성을 잃지 않는 인물, 어떠한 비천한 노동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물, 실패에도 낙심하지 않는 인물'을 꼽았다. 또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성직자로 갖춰야 할 세가지는 꼭 기억하라'며 '지성, 인성, 영성'을 강조하며 '이는 책, 고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얻는다. 이 문을 나가기 전에 지성, 인성, 영성을 갖추라. 새 술은 새 가죽부대에 담느니라' 고 전했다.

기도후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신입생들에게 전하고 참가자들이 신입생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을 보내었다.

2010년 봄학기 신입생 명단은 34명으로 다음과 같다.
FCC 조정숙, 안경희
ECE 권영미, 백수정
BA 배윤희, 정경숙, 조정선, 박춘화, 김민송, 심숙, 김영이, 최종일, 이예원, 성은실, 성시우, 문성진, 전민구, 유일상, 신명진

봄학기 개강부흥회

1월 25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2010년 봄학기 개강 부흥회를 개최했다. 첫날 강사로 나오신 애나하임 OMC의 윤기성 목사님은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꿈을 실현하며 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윤목사님은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꿈을 실현하며 살기 위해서 "긍정적으로 살라, 목표를 세우며 살라, 지금 실천에 옮기라, 작은 일부터 시작하라, 실패했으면 다시 시작하라."는 귀한 가르침을 주었다.

둘째날에는 임동선 총장님이 "개척정신을 가져라"라는 주제로 새 학기를 시작하는 부흥회를 이끌었다. 임총장님은 전 세계를 선교지로 보며 나아가 하나님의 제자를 만드는 사역에 헌신하는 모습을 몸소 실천하셨다. 그는 "의욕을 가지고 길을 넓게 닦고 희생정신으로 임하라."며 사역자의 길을 가는 학생들을 격려했다.

개강부흥회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목사

크리스마스 이브 공연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본교 음악과 김용재학우가 지휘하는 한인학생 30여명으로 구성된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한인타운 윌셔 양로보건센터를 찾아 노인들을 위한 성탄절 위문 연주회를 가졌다. 이날 단원들은 200여명의 한인 노인들에게 크리스마스 캐롤과 클래식 음악 연주를 선사하며 훈훈한 사랑의 마음을 전달했다.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를 지휘하는 김용재학우

2010 봄학기 학생 MT

말씀을 전하는 송병주 목사

지난 2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일어나 올라가자 벧엘로"(행 9:3~5)라는 주제로 샬롬기도원에서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송병주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샬롬기도원에서 학생, 교수님 등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월드미션대학교 봄학기 MT가 열렸다. 레크레이션과 식사를 나누며 학우간에 교제를 나누고 기도회를 가졌으며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사도행전에 나오는 바울과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신론과 교회론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다. 특별히 송병준 목사님의 메시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풀어주셨을 때(막16:12-13)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 졌듯 우리 학우들의 마음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뜨거워짐과 동시에 이 시대의 목회자를 향한 영적 각성의 날카롭고도 가슴 아픈 지적 속에서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이번 MT로 인해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된 학우들이 사랑으로 한 몸 되어짐을 직접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학술세미나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

세미나를 인도하는 송운철 교수

지난 4월 13일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본교 송운철 교수의 발제로 학술세미나가 열렸다. 이 날 발표를 한 송운철 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을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잠재적 자원들을 발견, 개발, 발휘하는 전체 과정이다."라고 정의하며 학생들에게 "자기 자신을 목회자로서 존재에서 출발한 목회를 구상해라"고 권면했다.

월드미션대학교 교과과정 및 교육평가 교수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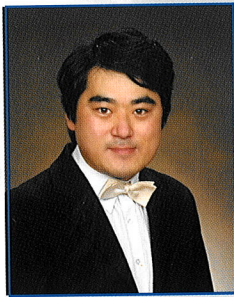
교과과정 교수위원회에서는 기존 학교 교육목적(institutional goals)과 각 프로그램별 교육목표 및 결과(goals and learning outcomes of school programs)를 수정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난 2009년 12월부터 2월 말까지 세 달 동안, 임성진 학감을 비롯한 전 교수진이 매주 정기모임을 통해 이를 수정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와 더불어 각 교과과정 과목의 수정도 병행되었다. 이어서 2010년 3월 첫 주부터 시작된 교육평가 교수위원회에서는 기존 교육 평가도구의 검토와 아울러 새로운 평가도구를 계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교수위원회의 정기모임

SD지역 원격교육 입학설명회 개최

지난 4월 10일 샌디에고 한빛교회 (정수일 목사 시무)에서 2010년도 원격교육 입학설명회가 열렸다. 이번 입학설명회에는 본교 최선영 교수 (Associate Dean of Distance Education)와 신선묵 교수, 이지희 과장, 김규호 과장이 참석하여 샌디에고 지역 한인 커뮤니티에 본교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라디오서울 샌디에고 지부 등 지역 한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가지기도 하였으며 참석자들과 상담을 통해 본교의 진출가능성과 학생유치전략을 세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기도 했다. 장소를 제공해 주신 정수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손진락 교수, 최선영 교수, 김수현 부목사(한빛교회, 18회 졸)
이지희 과장, 신선묵 교수 (왼편부터 순서대로)

세계적인 지휘자로 비상하라 박종휘 학우

박종휘 학우

"제 꿈은 세계적인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헝가리, 이태리, 오스트리아, 일본, 중국, 한국, 미국 등지에서 오케스트라 경험을 쌓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 파송된 선교사를 음악으로 또 후원자와 연결시켜드려 돕는 일이 선교적 비전입니다. 이런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월드미션대학교로 저를 보내신 것이 아닌가 생각하였습니다." 지휘자 박종휘는 2003년 박탕 조르다니아(Vahktang Jordania)의 이름을 딴 뉴 밀레니엄국제 지휘콩쿨에서 우승하였고, 우크라이나 하르코프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객원지휘를 거쳐 부지휘자로 활동했다. 2009년 이태리 트리에스테에서 열린 '이태리 국제 지휘콩쿨'에서 2차 본선에 입선했다. 국제지휘콩쿨은 본선에 합격만 하는 것으로도 그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2011년에 있을 불가리아 오페라 국제지휘콩쿨과 러시아 라흐마니노프 국제지휘콩쿨에 출전할 예정이다.

그는 모스크바 국립 음악원 오케스트라지휘과에서 수학 후 국립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오케스트라 지휘과를 졸업했다. 현재 음악석사 지휘전공 과정에서 윤임상 교수에게 사사를 받고 있으며 사랑의 빛 선교교회 성가대와 유스 오케스트라 지휘자, Orange County Chamber Orchestra 지휘자, Incorean Symphony Orchestra 지휘자, Agimus Opera Company 지휘자로 활동 중이다.

음악과 봄학기 소식

2010년 봄 학기가 4명의 신입생들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번학기는 실용음악과와 기악과의 앙상블 클래스가 새롭게 생겨 5월 첫 연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열리는 성악과, 지휘과 마스터 클래스는 본교 교수님들과 외부강사들에 의해 진행되며 학생들에게 큰 도전과 배움의 시간이 될 것이다. 본교 음악과 교수들은 크고 작은 연주회 및 마스터 클래스에서 활동하고 있다. 성악과 Kathleen Roland 교수는 지난 2월 16일 Pasadena Conservatory of Music에서 성악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스터 클래스를 열었고 R. MacNeil 교수는 LA Opera 단원으로 4월 한달간 〈독일오페라 이야기〉라는 주제로 LA 지역 연주회를 갖게 될 예정이다. 합창지휘과 윤임상 교수는 지난 2월 20일 한마음교회(벨리 영락교회)에서 열린 교회세미나 강사로 초빙되어 강의 하였다.

제 8회 학생음악회

월드미션대학교 음악과(음악과장 윤임상 교수) 주최, 제8회 학생음악회(Student Music Festival)가 지난 17일 나사렛 제일교회에서 개최됐다. 이날 9명의 지휘 전공자, 5명의 성악 전공자가 챔버 오케스트라와 함께 헨델의 '입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등의 종교 오페라 및 오라토리오 아리아와 중창곡 등을 다수 선보였다. 윤임상 교수는 "월드미션대학교가 기독교 대학으로서 특히 교회음악을 선도해나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번 학생음악회 주제를 종교음악(기독교 음악)으로 정했다"며 "매 학기마다 지휘, 성악 전공 학생들이 직접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수 있다는 것은 미국 주류 음악대학에서도 흔치 않은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윤 교수는 "훌륭한 교수진과 학생들, 매번 연주회를 지원한 보이지 않은 도움의 손길들 덕분에 현재까지 음악회가 성공적으로 이어져 감사하다. 다음 학기 연주회에는 더욱 더 훌륭한 작품의 기독교 음악을 바탕으로 오페라 등 일반 음악도 함께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강부흥회 말씀을 전하는 윤기성 목사

2010 봄학기 설교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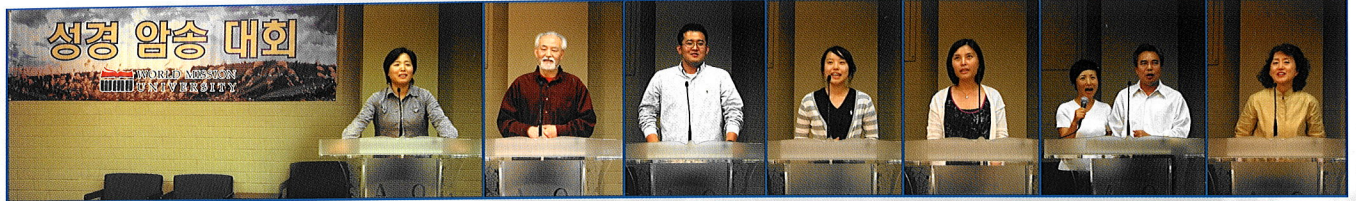
지난 4월 20일 채플시간에 2010년도 봄학기 설교대회가 있었다. 학생들의 목회와 사역 훈련을 위해서 열리는 교내 설교대회에 이번 학기에 BA과정의 윤박선미 학우가 창세기 32:26~30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얍복강가'라는 제목으로 참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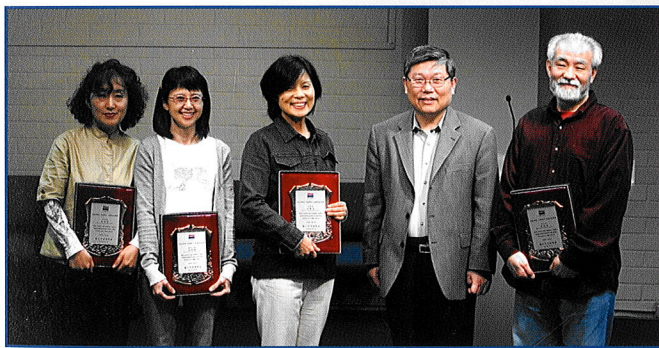
2009년 가을학기 설교대회

이권헌 학우

석미연 학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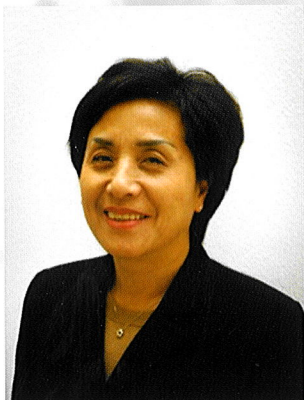
지난 2009년 10월 27일 가을학기 설교대회에서 원격으로 공부하는 이권헌 학우(최우수상)와 석미연 학우(우수상)이 선정되어 상패가 수여 되었다 .

성경 암송대회

성경암송대회 참가자들 (왼편부터: 윤박선미, 김선영, 정요한, 강소라, 정유나, 김대성 부부, 조정미)

설교대회 평가에 참여하신 학우들

2009년 성경암송대회 시상자들 (조정미, 유영림, 이명은, 김선영)

지난 4월27일 본교 예배실에서 열린 성경암송대회가 70여명의 학우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혜롭게 마쳤다. 7명의 참가자가 학생들의 열띤 응원하에 박빙의 승부를 가렸는데 참가자는 박선미, 김선영, 정요한, 강소라 정유나 김대성 학우이며 특별 찬조출연으로 조정미학우님이 지난번 대회에 이어 참가하였고, 암송해야 할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장을 외우는 것이 과제였다. 참가자들 모두가 직장과 학업, 그리고 자녀와 가족이 있는 장년층임에도 불구하고 학구적인 열정과 영적육적으로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지난 두 달간 열심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이번 대회에 참가하였다. 특히 지난번 대회보다 진일보한 사항은 김선영학우는 영어로 암송을 시도하여 많은 학우들에게 도전을 주었고, 김대성학우는 부인과 함께 전장을 서로 도우며 마지막절까지 외우는 선전함을 보여 학우들의 마음을 감동케 함은 물론이고 잉꼬부부임을 과시하였다. 다음 성경암송대회에는 참가자 학우는 물론이며 참가자의 전 가족이 주어진 성경구절을 나누어 외어도 되는 가족단위 성경암송대회가 될것을 기대해보니 마음 한구석이 흐뭇해진다.

다음 대회에 암송하여야 할 성경암송 구절은 "새로운 삶"(12절)에 대한 구절, "그리스도를 전파함"(12절)에 관련된 구절, "하나님을 의뢰함"(12절)에 관련된 구절,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12절)에 관련된 구절,"그리스도를 닮아감"(12절)에 관련된 구절, 등 총 60절은 이미 배포되었다. 지난 대회의 입상자들에 대한 트로피 증정식도 있었다.

지난 4월20일 채플시간에 시행된 설교대회에 참가한 분에 대한 평가서를 제출하여 주신 여러 학우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설교대회에 참여한 분과 여러 학우께 격려와 깊은 사랑의 실천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평가에 참여해 주신분들에게 작은 정성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설교대회와 평가하는 사역에 여러 학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CWM 전도훈련

CWM 개인 전도 훈련은 관계전도요 결신 전도 입니다. 또한 "쉽다 풍성하다" 는 motto를 가지고 20년 동안 훈련해 오고 있습니다.

이은희 목사

전도는 해도 좋고 안해도 좋고 하면 더 좋은 것이 아니다.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하셨다. 이 지상명령은 한번 갔다 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나아가라는 의미가 있다. 우리는 이미 이 명령을 받았다. 그러니 '나는 전도에 위임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께서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얻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다.(눅19;10)

우리도 공원도 가고 마켓도 가고 집집마다 끊임없이 찾아 나서야 한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끌려 다니면서도 높고 낮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행20:26~27)고 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겠고 전도에 대한 생각으로 민감해 있어야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할 수 있다. 복음을 전하려면 우선 전도 대상자를 찾아야 하는데 누구든지 처음만나면 Hi~하고 인사하지요, 그 다음에는 기분 좋은 대화10초미만, 이것은 마음을 여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교회 출석여부를 확인 하고 우리교회 자랑을 하면서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며 대상자의 info.를 받고 기도 수첩에 기록하고 그 때부터 마음에 태신자로 품고 기도를 시작한다. 그러나 기도만 하고 있을 것인가? 전도대상자를 찾았으면 결신하도록 도와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서 잠깐 방문하신 어느 자매님의 아버지를 전도하러 갔다. 그 자매님은 아직 때가 안 되었다고 전도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 아버지를 권해서 복음을 전했다.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한국으로 가셨다. 몇 달 후에 그 자매님을 만나서 아버지의 안부를 물으니 돌아가셨다고 했다. 만약 그 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었다면... 결신 전도는 이처럼 중요하다. 1초 후에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인생인데 빨리 복음을 전해야 한다.결신을 위해서는 신앙진단이 꼭 필요하다.의사가 환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진단을 해보고 처방하듯이 세심한 진단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영원히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도 그렇고 누구나 한번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 때 나는 천국은 간다고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라고 진단을 한다. 이것을 1차 진단이라고 한다.

이 때 No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신 적이 없으셨어요?'라고 묻고 Yes라고 대답하는 사람에게는 '언젠가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깊이 모신 적이 있으셨어요?'라고 질문을 한다.

이것을 2차 진단이라고 한다. 이 질문의 결과에 따라 전도지를 가지고 그림을 가리키며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가 다가 아니예요. 우리 육체안에는 누구나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만 살고 오라 하시면 이 육체를 벗어놓고 가는 곳은 천국 아니면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야만 해요(p3) 그러나 죄를 가지고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거든요.(p4) 그런데 바로 그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고 사흘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서(p5) 이렇게 (영접기도)만 기도 하시면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살다가 언제든지 천국에 가시는 거예요."라고 4분전도를 하면서 영접기도(p7) 하도록 도와 준다. 요한1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만 영접한다면 이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자와 같다.(마13:44)

우리가 이 보화를 이미 가졌으면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시기 위해 다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위하여 시간을 쥐어 짜내서라도 전도해야 한다.찾아 나서야 한다.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막1:38) 하신 예수님처럼 전도지 한 장이라도 주보 한 장이라도 전하는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을까?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삭개오를 보시고(눅19:10), 사마리아 여자를 보시고(눅4:4) 그 속에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그 능력의 근원은 따로 한적한 곳에서 습관을 좇아 기도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전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여 전도에 통달한 선지자적 전도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이 마지막 때에 품군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 처럼(마20:1) 살게 되기를 소망한다.

·미주 장로교 신학 대학원
CWM한국어 강사
미국 본부 바울전도단 단장
이 은희 목사 드림

임영희 · 한대연 부부가 사는 법

설교대회 평가에 참여하신 학우들

장애인의 달 4월을 맞아 지난 LA 중앙일보 4월 20일자에 본교 동문인 한대연 동문에 관한 기사가 실렸다. 그 기사를 부분 발췌하여 싣는다.

한대연 전도사는 월드미션대학교에서 2006년도에 M.Div. 과정을 취득하고 장애우사역을 하면서 한방의료원을 개원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다.

한대연, 임영희 시각장애인 부부는 파랑새와 함께 살고 있다. 사람들이 멀리서 파랑새를 찾고 있는 동안 부부는 가까운 곳에서 파랑새를 찾았다. 행복이라는 파랑새다.

한대연(58)씨와 임영희(52)씨는 시각장애인 부부다. 한씨는 고등학교 2학년때 수정체 적출수술을 받다가 시력을 잃었다. 청각장애까지 있어 일반인 청각기능의 25%가 고작이다. 임씨는 중학교때 시신경 문제가 생겨서 서서히 시력이 소실된 경우다. 한씨처럼 완전히 시력을 잃은 것은 아니지만 임씨가 실내에서 확일할 수 있는 것은 불빛뿐이다. 햇빛이 있는 야외에서는 그나마 앞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정도다.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그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다. 교회에 한번 가려고 해도 누군가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곳이 교회다. 1년 반 동안 꼬박 다니던 새벽기도도 라이드를 해주던 지인이 이사를 간 후에는 갈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에 가는 대신 단 둘이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라이드를 해주면 다시 새벽기도를 가겠냐는 질문에 고개를 내젓는다. "다시 새벽기도에 나가지는 않으려구요. 저를 데리고 다니는 사람은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빠지고 싶은 날도 저 때문에 빠질 수 없고요."(한대연씨)

그들의 신앙 생활은 또 하나의 고난을 헤쳐나가야 할 수 있는 부분이다. 넉넉하지 않은 삶 속에서도 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한다. 그가 가진 달란트인 한의를 통해서다. 한씨는 한의사다. 한국에서도 20년 가까이 침술을 펼쳤고 미국에 와서는 제대로 한의학을 공부 해서 2002년에는 한의 자격증도 받았다. 현재 한의학 박사 과정에 있다.

2시 30분쯤 함께 집을 나섰다. 매주 화요일 그들이 3년 반째 하고 있는 봉사를 하기 위해서다. 일주일에 세번 정도되는 그들의 외출에 한번이다. 밀알선교단에 간이로 마련된 장소에 한명한명 치료를 시작했다. 평소 말이 많지 않은 한씨가 입을 연다. 환자와의 의사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의 대화는 침을 놓는 동안 끊어지지 않는다.

자세히 들어보니 건강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에 관한 이야기다. 그는 자신의 치료를 물리적인 것에만 국한시키지 않는다고 말한다. 정신적인 부분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신학을 공부했고 목회학 석사를 졸업했다. 그래서 인지 그와 환자와의 대화는 의사와 환자이기 보다는 목회자와 성도 같은 분위기가 더 짙다.

부부는 헤어질 때도 처음 만났을 때처럼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따뜻했다. 내 손은 수도없이 많은 사람들의 손을 잡았지만 이 때처럼 따뜻했던 적은 없었다. 하루가 따뜻했다.

오수연 기자 syeon@koreadaily.com

정연희 동문

1. 정연희 동문의 부군이신 정성길 후원이사님이 지난 2월 12일에 신학교 후원금으로 2만달러를 기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신재(레베카) 학우가 후원금과 장학금으로 금일봉을 기탁하였습니다.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서 귀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C"국에서 선교하시는 고영집 동문(11회)과 코스타리카에서 선교하시는 유종수, 유혜란 부부 선교사(13회)께서 본교를 방문하시여 지인들을 만나고 선교지로 돌아가셨다.

당신의 것이 아니다

사도행전 16장 19-34

김박선미 학우

사도행전은 교회의 시작과 로마 전역에 기독교가 전파되는 과정을 담고 있는 신약 성경 중 유일한 역사서이다. 바울의 전도 여행 중 제 2차 전도 여행에서는 하나님의 계획과 간섭으로 복음이 소아시아만 머물러 있지 않고 유럽으로 전파되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마게도냐 지경의 빌립보에서 자주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녀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은 것을 시작으로 복음이 유럽에서 증거되기 시작하였다.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는 도중에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종이 바울을 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 구원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며 여러 날을 괴롭게 하자 귀신을 쫓아 내 주었다.

그 종의 주인들은 귀신들린 종의 점으로 인해 얻는 수입이 끊어지게 되자 바울 일행을 관원들에게 끌고가서 모함하고 고소하였으며 그들은 빌립보 관원에게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능욕을 당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로 바울 일행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이를 계기로 간수와 그의 가정을 구원하면서 빌립보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하여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훗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게 된다.

주의 사람들이 부름을 받고 선교지, 교회 사역자로,평신도 사역자로 여러 모양으로 사역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 그러나 우리들의 눈앞에는 잘 다듬어진 길보다는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할때가 많다.

우리는 동성연애등이 합법화되면서 악한 법이 믿는 자들을 묶어두려고 하며 어떤 지역에서는 여성 할례와 같은 악한 법이 행해지면서 어린소녀들의 생명까지도 위태롭게하고 있다. 경제가 우리들의 삶의 최종 목표인양 사회와 사람을 위협하며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를 몰아세우기도 한다.
그럼으로 사역에 현장에서는 상처 받은 많은 사람들로 더욱 힘든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그래도 주님의 확실한 싸인을 받고 왔는데 왜 이런 일이 ?"라는 애통의 기도로 시작하고픈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된다.

우리는 성령의 강권적인 개입으로 시작한 마게도냐에서 주님을 영접한 자주 장사 루디아를 소개 하면서 왜 저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을 쫓은 이야기, 그로 인해 옥고를 치르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를 살펴보길 원한다.

1. 바울과 실라는 고난의 현장에서 기도하며 찬양하는 종들이었다.

행14장 22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라면서 고난 받을 것을 미리 생각하고 이방 복음 사역을 시작하였다. 주를 위한 고난이 풍성했듯이 위로도 풍성하며(고후1;5) 자신들의 매맞음과 갇힘으로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감사하였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였을 때 지진이 나며 옥문이 열리고 모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겨지는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 세워진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보여 주었다. 빌립보에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서 알수 있듯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바울은 그들에게 기뻐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빌 4;6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다.

2. 바울과 실라는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던 종들이다.

큰 지진 후에 옥문이 열림으로 관수가 죄인들이 도망간 것으로 알고 죽으려 할 때 그들이 그냥 있는 것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라고 말한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귀신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하는 말을 들었거나 바울 일행이 절망적인 상황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찬미하며 감사하는 그들을 통하여 관수의 마음을 주께서 미리 만지신것으로 보인다.

바울과 실라는 그 관수와 그의 가족에게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였다. 우리가 이해 안되거나 힘든 상황을 만나더라도 기뻐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우리보다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이다.

3.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종들이었다.

바울과 실라는 로마 시권자로서 그들이 가진 신분을

밝히기만 하면 그들이 당한 고통을 모면 할수 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오직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다.

그들의 신앙고백이기도 하지만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가족들에게 또한 앞으로 믿음을 갖게 될 사랑하는 자들에게 보여줄 것이 있었다. 오직 하나님 만이 그들이 세상의 구원자이시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만 신뢰함으로 누릴수 있는 특권을 보여주고 든든하게 세워주게 되는 것이 있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세상의 권세자가 누구이냐 하나님이냐 로마냐라는 물음의 답과 함께 모든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우리가 찾고 의지해야 할 것이 무엇이며 어떠한 자세로 임해야 하는 지를 보여 주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빌 4;13)고 고백하고 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환경을 극복할수 있는 힘이 자신이 가진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 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4. 바울과 실라는 고난을 받은 자임에도 불고하고 감옥을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자신들을 염려했던 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있다. 신실한 주의 종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의 싸인을 보고 행하는 과정에서 맞이한 어려움이었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하실 일을 생각하며 그들은 감옥에서 찬양과 기도하였다. 그러므로 그들뿐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도 기적을 체험케하고 간수를 전도하며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일수 있었던 것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며 이루실이도 하나님이심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기 때문이다(빌 1장6).

그 믿음을 한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것으로만 누리지 않고 빌립보에 있는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또한 아직 지체가 되지는 않았지만 될 미래의 지체들의 것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서로 섬기는 삶을 드리므로 훌륭한 동역자가 되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 것이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우리의 것이 아닐수도 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어려운 때를 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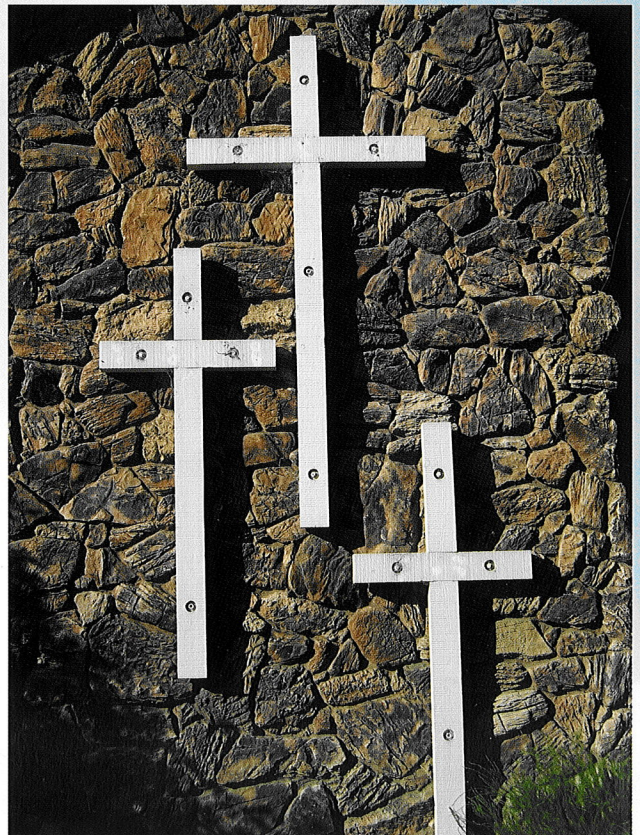
우리는 어떤 삶의 자리에 서있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끝없이 계속 될것처럼 우리 낙담시키려는 자리에 서있나? 끊어버려야 하는 관계들을 지속하면서 우리의 영이 한없이 초라해지는 자리에 서있나?

배우자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세워준다는 명목으로 가슴에 상처를 주는 자리에 서있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함으로 가슴 앓이하며 헤메이는 자녀들을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자리에 서있나? 변하지 않는 섬기는 지체들을 보며 갈등하며 낙심하는 자리에 서있는가?

우리의 삶에서 안겪었으면하는 상황과 현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고 혼란하게하며 이해 안되는 문제들이 우리를 기다린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의 발걸음은 빌립보 교인과 앞으로 믿음을 갖게될 지체들의 것이 되었다. 지금 우리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서 자손에게 주려한다. 우리의 믿음도 어떤 상황과 삶의 자리에 있더라도 주님 바라보고 서서 물려주자.

모든 것을 내버리고 싶은 절망의 순간이 온다해도 바울과 실라처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의 본이 우리안에 살아있는 것처럼 나만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이 ,앞으로 믿음을 소유할 자들의 것으로 알고 오늘도 우리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면서 승리하자.

김박선미 학우는 현재 월드미션대학교에서 M.Div. 과정에 있으며 원격담당 Coordinator로 봉사하고 있다.

"영적 지도자와 인간관계(Relationship)"

신선묵 교수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중요한 자질 중에 하나는 사람들과의 좋은 인간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지도력이란 결국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사람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좋은 실력을 갖추었어도 인간 관계에서 실패하면 지도자로써 역량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력에 관한 책을 보면 인간 관계의 기술에 관한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도 인간관계는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지도자로써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하여 어떤 점들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까요?

첫째, 영적 지도자는 인간 관계를 지도력의 이슈이기 이전에 영성의 핵심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되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필요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친밀감을 맺고 살아야야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영성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표현되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탈봇 신학교의 기독교 교육학과 교수인 Klaus Issler는 그의 책 "Wasting Time with God"에서 영성을 정의하면서 영성을 무엇보다도 "친구됨(Friendship)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영성이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인데 그 영성의 깊이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인간 관계에 반영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성숙함과 친밀감으로 반영되지 않는 영성이 얼마나 피상적인 것인지를 너무나도 잘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영성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도전을 던져주는 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James Huston은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맺고 있는 관계가 잘못되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고 있는 관계는 절대로 바를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5:23-24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 "너희가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먼저가서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는 다른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가 다른 인간들과 맺고 있는 관계 속에서 친밀감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감 속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인간 관계에서의 친밀감은 영성에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사항인 것이다.

둘째, 영적 지도자는 사람들을 목적으로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인간 관계에서 기술적인 측면의 지혜가 필요하지만 결국 인간 관계는 상대방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고 잘해 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나의 유익을 넘어서 상대방의 유익 자체를 구하는 것이 참된 인간 관계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사람들에게 잘 하는 것이 결국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잘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진실된 인간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바른 인간 관계는 사람들을 나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목적으로 삼을 때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관계의 기술들이 사람들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지 사람들을 나의 수단으로 삼기 위한 인간 관리의 기술은 곧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풀러 신학교의 클린톤 교수는 성공적인 지도자들은 사역에서 사람들과 맺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를 중요시 여긴다는 사실을 관찰하고 특별히 사람을 수단으로써 삼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삼는 가치관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은 하나의 수단으로 삼기에는 너무나도 큰 가치를 소유한 존재들입니다. 그 존재들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지도력에 있어서 인간 관계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것이 최고의 사랑인 것입니다.

셋째, 영적 지도자는 성공적인 인간 관계를 위해서는 실제적인 지혜와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인간 관계를 잘하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인간 관계를 효과적으로 잘 맺고 관리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 모두가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좋은 인간 관계를 위한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 위한 지혜 중에서 몇 가지만 살펴보면…

첫째, 우리는 바른 영성과 좋은 동기 위에서 좋은 인간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일을 성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은 일을 성취하고도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말씀드린 것 처럼 친밀한 인간 관계는 그 자체가 건강한 영성의 시금석이고 사람들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써 존귀하게 여김을 받기에 충분한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좋은 관계를 쌓아 나아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해야 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중해 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힘과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자신이 먼저 영적인 면이나 정신적인 면이나 육체적인 면에서 건강해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과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하는 일에 바른 균형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그의 책 "성공하는 자의 일곱가지 법칙"에서 하나의 중요한 지혜를 줍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자기 자신의 필요에 대한 "용기"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인간 관계 속에서 이 둘 중 어떤 한 쪽에 치우쳐서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하기 위하여 자신의 필요를 묵살하고 용기있게 표현하지 못한다거나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용기있게 주장하면서 상대방의 필요를 배려하지 못하면 결국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 갈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둘다가 건강해야 건강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넷째,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에너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실제적인 시간과 물질의 투자를 통해서 좋은 인간 관계를 세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우정이 자연적으로 생긴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이 실패하면, 그 실패에 대하여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단지 슬퍼만한다. 우리가 청소년기에는 친구들과 많은 관심을 나누고 수 많은 시간들을 함께 보낸다. 그럴 때에는 우정이라는 것이 그냥 생기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이가 먹어갈수록 우정이 그냥 생기지는 않는다. 우리가 직업이나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듯이 우정을 위해서도 노력해야만 얻을 수가 있다" 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주고 연락하고 관심을 주어야 친밀감이 싹트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좋은 인간 관계를 맺기위해서는 지속적인 배움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은 좋은 인간 관계는 기술이 아니라 예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 만큼 다양하고 깊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을 통하여 또 책을 통하여 또 우리 주위에 좋은 모범들을 통하여서 겸손히 인간 관계의 지혜와 기술을 익혀서 좋은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기를 바랍니다.

신선묵 교수는 Fuller 신학교에서 M.Div., Th.M., D.Miss 학위를 이수하고 현재 월드미션대학교에서 Missiology와 Leadership을 가르치고 있다.

1992년 제1회

강성구 선교사 M.A.
독일람슈타인 동양선교교회 선교사

김용식 목사 M.Div.
뉴멕시코 라스크루시스 한인 침례교회

김진숙 전도사 M.A.
한 국 안디옥교회봉사

박대영 집사 /Dip. 한국

박현수 집사 /Dip. 한국

오기열 목사 M.Div.
Talbot 박사과정

이법웅 목사 M.Div
LA 찬양교회 담임목사

임성진 목사 M.A.
월드미션대학교학감/교무처장

조원하 선교사 M.Div.

1993년 제2회

고바울 전도사

남조웅 선교사 M.Div.
밸리청소년센터 원장

오윤화 전도사 M.Div

유순자 전도사 M.Div
Fuller 목회학 박사, 학위받음

윤경호 목사 M.Div
콜로라도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이 훈 목사 M.Div.
나성신보/언론인

임용한 목사 M.Div / 한국

한은희 전도사 M.A.

1994년 제3회

김성봉 전도사 B.A.

김영희 선교사
중국 연변 현지 선교사

김추자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병원선교 전도사

박병철 전도사 M.Div
코너스톤교회 교육전도사

안국련 목사 M.Div
열매교회 담임목사

이극래 전도사 M.Div

이승인 목사 M.Div
시애틀 (WA)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이영숙 전도사 B.A.

이재현 목사 M.Div
Palmdale OMC 담임목사
WMU 운영이사

이정남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가주평강교회 담임목사

이종애 전도사 M.Div

주영세 목사 M.Div

함상배 선교사 M.Div
OMC 후원 중국 선교사

고해현

1995년 제4회

김계회 전도사 M.Div

김재선 목사 M.Div

이제은 집사 M.Div
동양선교교회

임금화 권사 B.A
멕시코 선교

장코스모스 전도사 B.A
중국선교사

조화진 사모 M.Div
병원사역

최영희 선교사 M.Div
태국 파송 선교사

홍문숙 전도사 M.A.

이은혜

1996년 제5회

김덕규 목사 M.Div
새소망선교교회 담임목사 (개척)

김진국목사/M.Div
김성조사모/M.A. (중국선교사)
오레곤 성결교회 목사부부

김애영 전도사 M.Div
부름선교교회

김인광 전도사 M.Div
킹슬리노인센터

남윤희 목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노명섭 목사 M.Div
샌디에고 제일 동양선교교회 부목사

박정숙 전도사
유니온교회 전도사

박준림 목사 M.Div

백영두 장로 M.A
Wycliffe Bible Translators

서기자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

유경순 전도사 B.A.

이명희 전도사 B.A.
뉴호프채플

윤재영 전도사 M.Div

이주형 목사 M.Div

최서혜 전도사 M.Div

박명보 선교사 M.A.
한국장로교회

김성자 전도사 M.Div
밸리한인장로교회 찬양,교구 전도사

1997년 제6회

권재옥 목사 B.A.
중국선교사

김동준 목사 B.A.
생명의 빛 교회 담임목사
브라질교회 담임목사

신봉례 M.Div

이성례 B.A

이혜정 전도사 M.A
나성순복음교회 전도사

1998년 제7회

김인희 B.A.
전도사

김효복 B.A
새생명비전교회

우병은 B.A.

이경인 B.A

이해련 B.A.
생명의빛 교회 전도사

전춘영 B.A.
밸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황성은 목사 B.A
필그림 교회

권옥선 전도사 M.Div
장로교회 전도사

김주연 목사 M.Div
중국선교사 (연변)

류창식 목사 M.Div
신영희 전도사 M.Div
버뱅크 새소망교회

엄재헌 목사 M.Div
프랑스 거주

이인검 목사 M.Div
L.A. 주님의 선교교회

전성도 전도사 M.Div
종려선교교회 전도사

전인순 전도사 M.Div
성서장로교회 전도사

한희숙 전도사 M.Div
동양선교교회소망부 전도사

1999년 제8회

김경례 전도사B.A

정남숙 목사 B.A.
토렌스 제일 장로교회 부목사

양준석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김인수 목사 M.Div

백우철 목사 M.Div
행복한 교회

윤성환 목사 M.Div
WMU 운영이사
윌셔연합감리교회 부목사

이명희 M.Div
뉴호프 채플

이상혁목사 M.Div
우리교회 목사

최학철목사 M.Div
중국선교사

조성운 M.Div
예수촌 교회

2000년 제9회

박재민 목사 B.A

유동훈 목사 B.A
멕시코 선교

이보경 B.A

조은혜 전도사 B.A
남가주 하나교회

홍종우 전도사 B.A.

강정학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권재옥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대환 전도사 M.Div

김동준 목사 M.Div
생명의빛 교회 담임목사

김인희 전도사 M.Div

박정숙 전도사 M.Div
유니온 교회 전도사

송종은 집사 M.A

전춘영 전도사 M.Div
밸리 유니온교회 전도사

정영식 장로 M.Div

조항목 목사 M.Div

황성은 목사 M.Div
필그림 교회

2001년 제10회

이해련 전도사 M.Div
생명의빛교회 전도사

조배성 목사 M.Div
나성중앙장로교회 전도사

김대준 목사 B.A.
LA 비전선교교회

서필관 목사 B.A.
중국 선교사

오하영 전도사 B.A.
세계로교회 전도사

이미량 B.A.
뉴호프채플

진미애 B.A.

진범서 B.A.

진숙이 전도사 B.A.
무궁화침례교회

최영순 전도사 B.A.
선민교회 전도사

홍표란 B.A.
사랑의 교회 전도사

2002년 제11회

강태준 전도사 B.A.
나성양문교회

김선애 전도사 B.A.
풍성한 교회

김승원 집사 B.A.
창대 교회

김정옥 B.A.
중국

안용균 전도사 B.A.
울타리 교회

윤병완 전도사 B.A.
행복한 교회

이신재 B.A.
전도사

주문경 B.A.
한국

최준영 B.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B.A.
나성양문교회

고영집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경래 M.Div
양문교회 전도사

김대준 목사 M.Div
중국선교사

김은숙 M.Div

유동훈 목사 M.Div
멕시코 선교사

한광덕 목사 M.Div
한길교회 담임

2003년 제12회

구은혜 전도사 B.A.

김경희 전도사 B.A.
나성한인감리교회

김연옥 B.A.

윤희석 B.A.
한국

이갑년 집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옥 B.A.
아프리카 선교사

임양택 목사 B.A.
소망교회

최임식 B.A.
IAM 교회

한석규 목사 B.A.
새길교회

김승희 M.Div.
영락교회

김창국선교사 M.Div.
소천

박인호목사 M.Div.
OMC사역

박재민 목사(M.Div.)

서필관 목사(M.Div.)
하나님나라교회

이후상 목사(M.Div.)
한국 사역

이희성 목사(M.Div.)

장윤정 전도사 M.Div.
베델한인교회

최준철강도사 M.Div.
세계아가페 선교교회

한은혜전도사 M.Div.
남가주 하나교회

배윤범 장로 M.A.

오광찬 장로 M.A.
동양선교교회

진성백 목사 M.Div.
나성양문교회

2004년 제13회

곽종혁 전도사 B.A.

권인순 전도사 B.A.
미주평안교회

김규호 전도사 B.A.
IAM교회

김수현 목사 B.A.
한빛교회

서상민 목사 B.A.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서영희 전도사 B.A.
KCC교회

성욱호 전도사 B.A.
세계선교교회

이만식 B.A.

이미정 B.A.
알라스카

최현숙 전도사 B.A.
벨리호산나교회

고영보 M.Div.
동양선교교회

곽상채 M.A.
남가주사랑의교회

김학송 목사 M.Div.
중국선교

김혜선 M.Div.
콜롬비아 선교사

방헬렌전도사 M.Div.
Korean Fellowship Church
Henderson, NV

변형철 M.Div.

양성반 M.Div.
동양선교교회

유정수 목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유혜란선교사 M.Div.
코스타리카 선교사

이신재 전도사 M.A.

2005년 제14회

강문정 (B.A.)
W.L.A. 한인교회

김덕호 목사 (B.A.)
뉴저지 벧엘장로교회

김박선미 집사 (B.A.)
열방교회

김연주 집사 B.A.
벨리찬양교회

김영애 권사 B.A.
쥬빌리형제교회

노광조 B.A.
감사한인교회

이명욱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이순자 전도사 B.A.
동양선교교회

오광탁 목사 B.A.
반석선교교회

최용석 목사 B.A.
L.A. 한인침례교회

조경진 전도사 B.A.

박정일 목사 M.A.
일본 선교

정부르스 목사 M.A.
소망과 사명교회

최선영 전도사 M.A.
WMU 교수

윤병완 전도사 M.Div.
행복한 교회

이사무엘 목사 M.Div.
한국 사역

임양택 목사 M.Div.
소망교회

장시희 전도사 M.Div.
Servant Church

2006년 제15회

강명석 B.A

김선영 전도사 B.A

김소영 B.A

김영준 전도사 B.A
한미중앙교회

박기용 B.A
동양선교교회

박영산 전도사 B.A

이귀란 B.A
C국 선교사

이인미 B.A
둘로스 교회

이지나 B.A
나성교회

정연희 B.A
선한목자장로교회

박지은 B.A
예수마을교회

김진주 M.A
Cornerstone Church

문혜원 M.A
올림픽 장로교회

강태준 M.Div
나성 양문 교회

김영종 목사 M.Div

노광조 M.Div
감사한인교회
아프카니스탄 선교사

백희숙 M.Div
남가주 사랑의 교회

양덕승 목사 M.Div
베델 한인 교회

오하영 전도사 M.Div

우상문 전도사 M.Div
베델한인교회

이지혜 M.Div
새생명비전교회

장원욱 목사 M.Div
새생명비전교회

한대연 M.Div
베델 한인교회

최준영 M.Div
동양선교교회

홍표란 M.Div
Christian Assembly

2007년 제16회

김영철 B.A
한미중앙교회

김명구 전도사 B.A
선한청지기교회

김룡 전도사 B.A
횃불교회

김병성 B.A
윌셔온누리교회

김용일 B.A
한국

Dan Son B.A
오레곤 동양선교교회

김현욱 전도사 B.A
가까운 교회

김혜정 B.A
동양선교교회

박정애 B.A
New Hope Chapel

오정성 B.A
나성순복음교회

윤명주 B.A
주님의 영광교회

이강천 B.A
동양선교교회

이기영 전도사 B.A
알함브라 침례교회

이옥희 전도사 B.A
마가교회

임중혁 전도사 B.A
다우니 동양선교교회

장은혁 B.A

정성자 B.A
동양선교교회

정세련 B.A
엘사우스교회

한춘복 B.A
평강교회

허영애 전도사 B.A
유니온교회

윤성희 B.A
주님의 영광교회

원영미 전도사 M.A
새창조교회

김정신 M.A

김연주 M.A

임명화 M.A
(소천)

전진수 전도사 M.A
인랜드교회

홍선영 M.A
새생명비전교회

강대홍 목사 M.Div
남가주아시아교회

유동근 목사 M.Div
세계로선교교회

김덕호 목사 M.Div
뉴저지 베델장로교회

서충석 M.Div
가든그로브
남가주가스펠교회

이혁우 목사 M.Div
벨리 하나로교회

장재영 목사 M.Div
베렌도한인침례교회

2008년 제17회

곽창원 B.A

김그레이스 B.A
베다니 한인교회

김경래 B.A
찬양교회 중고등부 전도사

김대성 B.A
LA 동양선교교회

김옥배 B.A
충현성결교회

John Kim B.A

박옥련 B.A
중앙연합감리교회

석미연 B.A

심갑섭 B.A

안두환 B.A
LA 동양선교교회

안정희 B.A
말씀의 집 영유아부 전도사

엄인호 B.A

왕영신 B.A
LA 동양선교교회 성가대

윤상숙 B.A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

이석주 전도사 B.A
마가교회 새벽예배 인도
장/청년부 성경공부

이원희 B.A
ANC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이정인 B.A

이흥구 B.A
빌립 선교회 대표 목사

정병기 B.A
LA 온누리 운영부 전도사

조광범 B.A
동양선교교회 AWANA

주익성 B.A
LA 동양선교교회

차세실 B.A
성 바오로 성당 상담사역

채규태 목사 B.A
Good Morning
God Bless Mission
노숙자 사역

채동훈 B.A
마가교회

최은희 B.A
남서울 은혜교회

최자란 전도사 B.A
투산 사과나무교회

권상욱 M.A
세계비전교회

김영안 M.A
나성성결교회 Soloist

김주영 M.A
미주평안교회 반주자

김희경 M.A

박양숙 M.A
시온연합감리교회 성가대

백혜선 M.A

이나은 M.A

이미경 M.A
윌셔연합감리교회

이미정 M.A
Redeemer 장로교회

강석재 M.Div
세계로 선교회 / 일본 선교사

기희승 M.Div
세계로 선교회 / 광주지역 간사

김상중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수현 목사 M.Div
샌디에고 한빛교회 행정

김옥균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김인철 M.Div
St. John's Presbyterian Church
국제 사역

김철수 M.Div
세계로 선교회
부르키나 파소 선교사

노명철 목사 M.Div
나성 주님의 교회 부목사

노창수 목사 M.Div
성공회

박창식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남아공 프레토리아 선교사

송필오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부산지역 전임 간사

신중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일본선교사

오광탁 M.Div
반석선교교회 목사

이대일 M.Div
새벽교회

이성균 M.Div

이영섭 M.Div
세계로 선교회
서울지역 간사

이종임 목사 M.Div
세계로선교회 부산지역 간사

이종현 M.Div
헐리웃 장로교회

이지희 M.Div
가까운교회

이홍주 목사 M.Div
월드미션대학교

장윤현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대표

장진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코트디부아르 선교사

Paul Chung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인도 선교사

조승환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하윤호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캐나다 선교사

허종훈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일본 선교사

황만기 목사 M.Div
세계로 선교회
서울 지구 간사

2009년 제18회

강동완 B.A.
AV한인장로교회
찬양전도사

곽동훈 B.A.
하와이 주 찬양 한인 성결교회
전도사

김나경 B.A.
Fullerton 장로교회 전도사

김성아 B.A.
Fullerton 은혜한인교회
청년부간부

김제홍 B.A.
반석장로교회 주일학교전도사

김중한 B.A.
나성주은혜교회 전도사

노종주 B.A.
조은아침선교회 전도사

라인근 B.A.
로렌하이츠 아름다운교회
새교우전도사

박노라 B.A.
CI 가족교회 목사

박용수 B.A.
흰돌선교회 전도사

박인성 B.A.
라크레센타 안디옥장로교회
새신자부

박중섭 B.A.
뉴욕감리교회 집사

양한나 B.A.
한미특수교육센터 소장

오금미 B.A.
나성순복음교회 중보기도팀장

이현일 B.A.
알함브라교회 전도사사모

이혜란 B.A.
LA 온누리교회 장애우사역

조성은 B.A.
Cerritos Mission Church
멕시코 선교사

홍승미 B.A.
유타한인장로교회 집사

안영표 B.A.M.
밸리큰목양교회 찬양전도사

이대명 B.A.M.
대흥장로교회 영상방송간사

장주언 B.A.M.
라크레센터 브림장로교회 지휘자

정성희 B.A.M.
윌셔온누리교회 평신도

김도희 M.A.M.
나성남포교회 성가대

류은미 M.A.M.
동부장로교회 성가대지휘자

윤경미 M.A.M.
세계등대교회 반주자

이경원 M.A.M.
LA바울교회 지휘자

조현주 M.A.M.
세계로교회 성가대 솔리스트

권은석 M.Div.
2010 Celebration &
미주 Staff Beyond 미주본부

김경숙 M.Div.
세계로선교회 일본 아키타 선교사

김인숙 M.Div.
세계로선교센터
일본 후쿠시마 선교사

목창명 M.Div.
세계로선교회 가나 선교사

박원희 M.Div.
세계로선교회 일본 아키타 선교사

박윤우 M.Div.
예수가족교회 예배팀장

박종환 M.Div.
세계로선교회 직장사역군 staff

박홍열 M.Div.
세계로선교회 아르헨티나 선교사

백인천 M.Div.
세계로선교회 일본 후쿠시마 선교사

서명호 M.Div.
세계로선교회
독일뷔츠부룩 교회 담임 교역자

서상민 M.Div.
남가주 빌라델비아교회
찬양예배담당

안창규 M.Div.
세계로선교회 부산대학교 책임간사

안창호 M.Div.
세계로선교회 협력간사

유병진 M.Div.
세계로선교회 C국 선교사

윤희석 M.Div.
LA동양선교교회 싱글목장

이기영 M.Div.
알함브라교회 교육부전도사

이양우 M.Div.
세계로선교회 한양대학교 개척간사

이태희 M.Div.
세계로선교회 군사역

임보영 M.Div.
벨리하나로교회 전도사

최준모 M.Div.
세계로선교회 울산지구 대표간사

한상훈 M.Div.
세계로선교회 협력간사

월드미션대학교 후원자 명단

이사회 후원

강모세 / 곽건준 / 곽동호 / 금재연 / 김건태 / 김계환 / 김금자 / 김대성 / 김두환 / 김범수 / 김사라 / 김상연 / 김세웅 / 김영국 / 김영만 / 김영주 / 김인희 / 김재권 / 김정기 / 김지수 / 김진광 / 김진영 / 김진호 / 김창범 / 김창호 / 김채광 / 김청익 / 김충일 / 김해룡 / 김현숙 / 김휘웅 / 남조웅 / 마사웅 / 마창식 / 명잔 / 박리챠드 / 박재호 / 박제임스 / 박태호 / 박평식 / 방연옥 헬렌 / 박옥/ 배기복 / 백형권 / 석태운 / 성광수 / 손석효 / 손주영 / 송인하 / 신동순 / 신병모 / 신재권 / 신재철 / 안광석 / 안의식 / 안정삼 / 양근수 / 엄경자 / 엄창웅 / 여상직 / 오광찬 / 오상헌 / 오재선 / 오태근 / 유문근 / 유수잔 / 윤성환 / 윤정림 / 윤정아 / 윤태중 / 이규태 / 이광영 / 이미옥 / 이병인 / 이병주 / 이승인 / 이재현 / 이정남 / 이정원 / 이중용 / 이태종 / 이필섭 / 이한길 / 이형규 / 이효성 / 이효신 / 임동선 / 임승천 / 임승표 / 임의진 / 임진수 / 장기준 / 장코스모스 / 정광자 / 정문섭 / 정봉모 / 정중섭 / 정진식 / 정호영 / 조왕하 / 조용직 / 조정현 / 주성천 / 진성백 / 최근홍 / 최선영 / 최종원 / 최형기 / 최호춘 / 한궁리 / 한동열 / 한승수 / 한주영 / 한평우 / 함수현 / 허명 / 홍성식 / 홍춘만 / 황재길

연합회 후원

LA OMC (강준민) / 다우니 OMC (남종성) / 로간 OMC / 로마한인교회 (한평우) / 발렌시아 OMC (한광덕) / 뷔츠브룩한인교회 (서명호) / 샌디에고 OMC (김성식) / 세계복음선교연합회 / 세리토스 OMC (석태운) / 쌍파울 OMC (황은철) / 씨애틀 OMC (이중용) / 아리조나 OMC (김용식) / 알라스카 OMC (이성원) / 오레곤 OMC (이상호) / 유타 OMC (장익성) / 주님의 선교교회 (이인검) / 중부 OMC (임병택) / 콜로라도 OMC (윤경호) / 팜데일 OMC (이재현) / 한미중앙교회 (김건태) / 한빛교회 (정수일) / CLMM (군사랑선교회)

동문회 후원

강성구 / 강태준 / 고영보 / 권인순 / 권재옥 / 김경례 / 김동준 / 김승원 / 김용식 / 김인희 / 김창국 / 김추자 / 김효복 / 남조웅 / 박인호 / 방헬렌 / 백희숙 / 양덕승 / 양성반 / 우상문 / 유정수 / 윤경호 / 윤병완 / 윤성환 / 이명희 / 이상혁 / 이인검 / 이재현 / 이정남 / 이희성 / 임금화 / 임양택 / 장원욱 / 장코스모스 / 정연희 / 조배성 / 조성은 / 조은혜 / 조항목 / 조화진 / 진성백 / 한광덕 / 한석규 / 한은희 / 홍표란

기도후원회

Agron, David / Alvarez, JaRan Choi / Bae, DongLim / Bishop, Chea Sun Shin / Byun, In Hwa / Chae, Sung Hee / Chang, Cosmos / Chang, Yoo Jin / Chang, Hye Jin / Cho, Jae Sung / Cho, Myung Hee / Cho, Sang Cun / Cho, Seoghwan / Cho, Young Kern / Choi, Hyun Sook / Choi, Ja Ran / Choi, Min Young / Choi, Young Soon / Chon, Johnny / Chun, Daniel J. / Chun (Nam), Kasey / Chung Seong Ja / Chung, Ki Yeon / Chung, Young A / Cosmetic City / Doh, Eun Joo / Dong, Pil Ryeo / F.S.W. / Ham, Dong J. / Ham, Jung Hee / Han, Esther Mi Kyung / Han, Grace / Hahn, Mi Kyung / Han, Pyung W. /Hong, Jung Nam / Hur, Myong / Im, Sung Sil / Jeon, HaeKyung / Jeon, Yong Gyu / Jeong, Soon Duk / Jeong, Young Sook / Jun, Sung Do / Jung, Bong Mo / Jung, Jong Shik / Jung, Young A. / Kang, Christine / Kang, Daniel Dae Hong / Kang, Joo Hee / Kang, Tae Joon / Kang, Young Sun / Kil, In Sun / Kil, Jong Tae / Kim, Bok Sun / Kim Christine / Kim, Chun Hee / Kim, Chung Joo / Kim, David / Kim, Dae Young / Kim, Duck Ho / Kim, Duk Kil / Kim, Hyun Sook / Kim, Evelyn S. / Kim, Genie / Kim, Grace / Kim, Hyun Ja / Kim, Hyun Kil / Kim, Kwang Hoon / Kim, Kwon Soo & Jane / Kim, Kyong Nyo / Kim, Kyung Sook / Kim, Peter Kwans / Kim, Rachel / Kim, Sang / Kim, Soyeong / Kim, Steve / Kim, Yong Chorl / Kim, Young Jong / Kwon, Bong Nyo / Kwon, Hyuk Min / Kwon, Jung Ae / Kwon, Moon Ja / Lee, Brad D. / Lee, Chun Do / Lee, Daniel S. / Lee, David / Lee, Dong Ho / Lee, Ellen W. / Lee, Eunice H. / Lee, Hannah / Lee, Hong Il / Lee, Jessica / Lee, Jin Dong / Lee, Jenny / Lee, Jessica Yong C. / Lee, Jong Ae / Lee, Jong Do / Lee, Keum Hee / Lee, Ki Young / Lee, Kyong / Lee, Kyudong / Lee, Kyung S. / Lee, Luk Rim / Lee, Myo Hwan / Lee, Sáng Hyouk / Lee, Sang Tae / Lee, Si Ja / Lee, Sok Chu / Lee, Soo Hoon / Lee, Soon Ja / Lee, Sung Yon / Lee, Won Yong / Lee, Won Young / Lee, Yong C. Jessica / Lee, Young / Lee, Young Ae / Lim, Hyun Jae / Lim, Kum Hwa / Lim, Sung Sil / L.S.I. / L.T.M. / McLain, Ginny / Nam, Lydia / Nam, Sang Il / Nokdoo Graphic Printing / Oh, Hee Jung / Oh, Peter Sungtae / Pae, David / Pae, Eung-Kwon / Park, Byung Mo / Park, Ji Seon / Park, Jin Sang / Park, Jung R. / Park, Kap Young / Park, Mi Sung / Park, Mi Sook Choi / Park, Myung Hee / Park, Ruth Kim / Park, So Ra / Park, Soo Bok / Park, Sunki / Park, Sung Soo / Park, YoonWoo / Sans Souci, LLC / Seo, Young Soo / Shin, Boo Nam / Shin, Hyun Woo / Shin, Kyong Ho / Song, Moon Sang / Suh, Dong Min / Sumpaio, Mun Cha / Um, Kyung Choon / Um, Sang Ho / Won, In Hye / Woo, Sanghun / Yang, Duk Sung / Yang, Young Eun / Yeo, Byung Hyun / Yeo, Byung Hyun / Yeo, Esther / Yeo, HyunJung / Yeo, Uk Jae / Yoo, Gil Sang / Yoo, Sung Ryu/ Yoon, Sang Suk / Yoon, Sang Wook

김성종 / 김영태 / 노을래 / 윤기성 / 온성철 / 이홍주 / 정연희 / Ahn, Il Chan / Chun, KwangIl / Kim, Sang Joong / Lee, Jung Soo / Lim, In Ok / Pae, Hye Yung / Park, Woo Sung / Wilsihre State Bank / Cho, GoonJa / Choi, Lisa Pilsoo / Kim, Christina / Kim, NamJin / Lee, Boram / Lee, SongJa / Lee, Won bok / Lee, Yang Ye / Lee, Yong Jin / Park, Grace / Park, SangEun / Park, Sarah / Park, YongRan / Yang Yong Man / Youm, Caroline / Youm, Kathy

달란트 운동 참여자

강현주, 고선우, 고정석, 공성란, 곽순희, 금미화, 김권수, 김대동, 김대성, 김동환, 김명신, 김박선미, 김선애, 김선영, 김정득, 김중한, 김캐티, 노종주, 라캐빈, 박병문, 박윤우, 박정훈, 박표강, 서무생, 손복남, 신선미, 신은혜, 양한나, 여현정, 오금미, 원현옥, 유병필, 유영, 윤명주, 윤박선미, 윤은영, 이성희, 이용자, 이은혜, 이현, 이현일, 이희재, 임중혁, 정나연, 정병기, 조명희, 채규태, 최명순, 최영수, 추영선, 최세라, 한용섭, MT 사랑팀

동양선교교회 기도후원회

강애순 / 강금석 / 강병례 / 강병목 / 강선주 / 강승묵 / 강영혜 / 강정희 / 강종홍 / 강지미 / 강한나 / 강형묵 / 계옥주 / 고덕유 / 고은현 / 고정희 / 고주현 / 곽광례 / 곽병재 / 구경훈, 연호 / 구자원 / 권재환, 이경미 / 금남이 / 금재연 / 김경이 / 김경자 / 김경호 / 김경호, 현주 / 김금동 / 김금례 / 김금자 / 김기옥 / 김기자 / 김나영 / 김낸시 / 김동석 / 김룻 / 김명진 / 김문숙 / 김문희 / 김미정 / 김보환, 영의 / 김삼중,은희 / 김선영 / 김선욱, 혜랑 / 김선혜 / 김성권 / 김세민 / 김수지 / 김소리 / 김신환, 박슬기 / 김영숙 / 김영애 / 김영옥 (0403) / 김애순 / 김옥남 / 김옥순 / 김옥임 / 김옥자 / 김옥저 / 김우월 / 김인곤 / 김인애 / 김재순 / 김재용, 화실 / 김재한 / 김정우 / 김정이 / 김정화 / 김정환, 선희 / 김조안나 / 김종길 / 김지성 / 김지윤 / 김창범 (예은) / 김추자 / 김충걸 / 김충일, 복순 / 김헬렌 / 김혜순 / 김혜영 / 김혜자 /김혜정 / 김홍선, 성숙 / 김홍순 / 김효신/ 나승자 / 남기문 / 남기안 / 노애린 / 노정민 / 마정순 / 문동숙 / 문정희 / 문지민 / 문지원 / 박경남 / 박경희 / 박논세 / 박송학 / 박수복 / 박수형 / 박연숙 / 박영부 / 박옥 / 박옥희 / 박재옥 / 박정애 / 박종순 / 박청원 / 박캐롤, 영환 / 박하늘 / 박현숙 / 박환, 정희 / 박호석 / 배성은, 혜영 / 백기돈, 봉님 / 백형래 / 성광수 / 성병헌 / 손홍심 / 송숙희 / 송혜숙 / 승정희 / 승지수 / 신정민 / 신태문 / 신혜나 / 심옥선 / 안성실 / 안옥순 / 안의식, 옥자 / 안종순 / 안현숙 / 양순옥 / 양승달 / 양아경 / 양영옥 / 양지훈, 진희 / 양준석 / 양학봉 / 엄경춘 / 엄옥엽 / 여상락회 / 염혜경 / 오광찬 / 오명엽 / 오명순 / 오윤표 / 원세현 / 원재수 / 유금자 / 유문식 / 유순의 (9043) / 유월선 / 유정숙 / 유태분 / 유현숙 / 윤미진 / 윤선영 / 윤에스더 / 윤응숙 / 윤정림 / 윤준 / 윤창섭 / 윤희석 / 윤희원 / 이경순 / 이광열 / 이규현. 명순 / 이기남 / 이그레이스 / 이금선 / 이금춘 / 이레베카 / 이마리아 / 이명섭 / 이명순 / 이명일 / 이병걸 / 이복선 / 이성희 / 이순섭 / 이승기 / 이연순 / 이영희 / 이옥선 / 이원석 / 이윤동 / 이은혜 / 이인숙 / 이인식 / 이재순 / 이정선 / 이정숙 / 이정순 / 이정원 / 이종만, 수단 / 이종찬, 경혜 / 이종현 / 이주연 / 이주희 / 이중배 / 이진선 / 이찬봉 / 이태길 / 이황윤 / 이형영 / 이혜숙 / 이효신 / 이희범 / 임경숙 / 임동선 / 임금화 / 임동진 / 임은점 / 임은화 / 임정자 / 장승자 / 장영애 / 장정숙 / 장진재 / 전도화 / 전영식 / 전윤진 / 전중하 / 정광자 / 정데보라 / 정성길 / 정영순 / 정영옥 / 정인숙 / 정의량, 현숙 / 정의정, 용주 / 정행화 / 정희성, 선희 / 제임스 스미스 / 조명희 / 조순선 / 조순애 / 조아나, 명기 / 조웅래 / 조윤희 / 조향숙 / 조현희 / 주익성 / 주정현 / 주화순 / 진강일, 예경 / 차귀동 / 차순임 / 차영숙 / 천영민 / 천효수 / 채순임 / 최남숙 / 최미선 / 최미정 / 최수남 / 최승희 / 최신자 / 최영은 / 최의송 / 최재호, 미경 / 최종열 / 최주희 / 최형기, 미자 / 최희숙 / 치동열 / 한규환, 영숙 / 한동희, 만혜 / 한승수, 승향 / 한안나 / 한영희 / 한용섭 / 한인실 / 함재목 / 함정희 / 허명 / 홍기영 / 홍명주 / 홍병희 / 홍세욱 / 홍수현 / 홍옥선 / 홍은옥 / 홍정혜 / 홍재은 / 홍조시아 / 홍주희 / 황봉자 / 황화진 / 회원번호9421-2 / Jin, Hui / Kang, Jimmy / Kang, Tommy / Kim, Stacy J. / Lee, In Sook / Lee, Rebecca S. / Myung, John / Yoon, E.S.

500 S. SHATTO PLACE, LOS ANGELES, CALIFORNIA 90020
TEL (213) 388-1000 | WMUINFO@WMU.EDU

WWW.WMU.EDU

총　장: 임동선 박사 Ph.D., D.Min.
부총장: Dr. John E. McKenna Ph.D.